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3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 27.(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3. 27.(수)	담당부서	무역진흥과
담당과장	이상준 과장(044-203-4030)	담 당 자	진승덕 사무관(044-203-4035) 홍성진 주무관(044-203-4036)

지역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강화

- 2019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
-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통합화·대형화 추진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27.(수) **2019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수출활력촉진단, 기업간담회 등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①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②무역사절단 전문화·대형화, ③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역강소기업 참여확대** 등에 대해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19.3.27(수) 15:00 ~ 16:30 / 대전역 KTX 회의실

○ 참석대상 : 산업부(무투실장 주재)·중기부·농림부 등 7개 관계부처, 17개 광역지자체, 무역협회, KOTRA, 중기중앙회, NIPA 등 10개 수출 유관기관

□ 먼저,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과 관련해서는,

○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단체관 조성을 지원하는 438개 해외전시회 중 동일 전시회에 **복수의 부처·지자체가** 지원하는 **67개 해외전시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한국관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동일 전시회 내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단체관의 **위치가 분산**되어있어 단체관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고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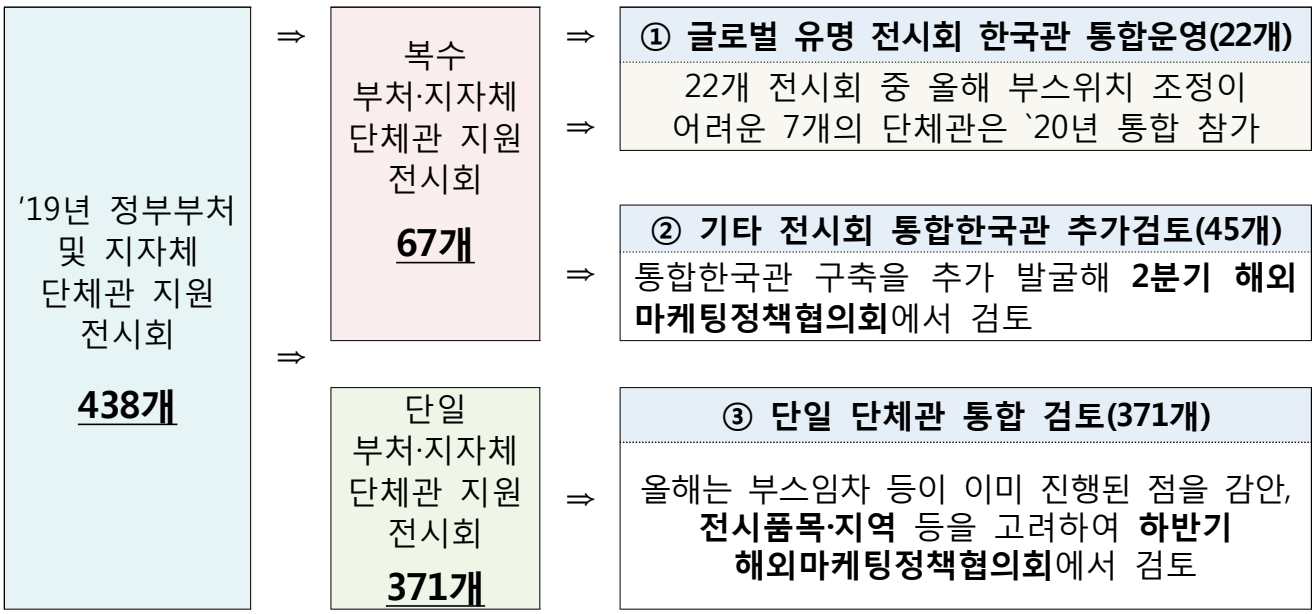
- ① 이에, 지난 3.4. 수출활력제고대책을 통해 **10개 전시회의 통합 한국관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계가전전시회(CES), **하노버 메세박람회장(MESSE)** 등 국제 전시회와 도쿄 로봇, 런던 교육장비 등 우리 기업의 수요가 높은 전시회 **12개를 추가 발굴**하여 **총 22개의 세계 유명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② 복수의 부처·지자체가 지원하는 67개 전시회중 22개 글로벌 유명 전시회를 제외한 **45개 전시회에 대해서는** 통합한국관을 추가 발굴해 **2분기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 ③ 또한, 단일 부처·지자체가 지원하는 **371개 전시회에 대해서도** 전시품목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통합대상**을 발굴하고, **하반기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 통합 대상 전시회에는 우리 참가기업의 전시부스를 한 곳에 밀집시키는 통합 한국관을 구축해 **해외 구매인(바이어) 모집·국가브랜드 활용·기업 간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 정부 지원전시회 및 통합추진 방안 >



< 22개 통합한국관 대상전시회(안) >

분야	전시회명	통합시기	분야	전시회명	통합시기
전기 전자	CES	`19.1	섬유 패션	상하이 춘계 인터텍스타일	`19.3
	MWC*	`21.2		심천 인터텍스타일	`19.7
기계·로봇	하노버 MESSE	`20.4		상하이 추계 인터텍스타일	`20.10
	오사카 기계요소 기술전	`19.10	에너지	휴스턴 가스텍	`20.9
	도쿄 로봇	`19.12	소비재	볼로냐 미용전	`20.3
조선	휴스턴 해양박람회	`19.5		중국 상하이 유아용품	`19.7
	노르웨이 오슬로	`19.6		코스모 뷰티 아시아	`19.9
	상하이 마린텍	`20.12		도쿄 선물용품 잡화전	`19.10
의료·바이오	퀼른 치과	`19.3		홍콩 미용전	`20.12
	필라델피아 바이오	`19.6	교육	영국 런던 교육장비	`19.1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	`19.6	종합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19.4

* MWC는 '20년까지 부스위치가 확정되어, `21년부터 통합 추진

□ **무역사절단의 전문화 및 대형화**와 관련해서는,

○ 올해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나가는 총 205회의 무역사절단 중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한 **65회 무역사절단**을 **업종별·국가별 32회로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 일반적으로 무역사절단은 **10개사 내외의 소규모**로 꾸려져 현지에서 **해외바이어를 모집하고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기계(4회)·정보기술(IT)(3회)·차부품(4회)·소비재(6회) 등 17회 무역사절단을 **동일 업종별 9회로 통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 `19년 9회 업종 통합 무역사절단 >

업종	시기	파견지역	통합 기관수	참여기업수
기계장비	3월	두바이	2개	23개
소비재	3월	타이페이	2개	19개
IT	4월	빈,베오그라드	3개	7개
자동차·부품	4월	도쿄, 오사카	4개	40개
IT	7월	상하이,청두	3개	7개
기계·조선	7월~8월	자카르타	2개	25개
IT	9월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3개	7개
소비재	10월	오사카	2개	20개
소비재	10월	도쿄	2개	20개

-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48회**는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위주의 **23회로 통합**해 **참가기업 규모를 평균 9.7개에서 20.4개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 `19년 23회 해외 지역별 통합 무역사절단 >

구분	신남방	신북방	중국	미국	중남미	중동	EU	호주
통합전	16	8	6	4	5	5	2	2
통합후	8	4	3	2	2	2	1	1

- 또한, 향후 미리 **전략시장·유망품목 대상 무역사절단**을 기획하고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해외바이어의 전문성, 규모 강화** 등 **내실화**도 추구한다.

○ 통합 무역사절단을 제외한 **140회 무역사절단**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되, 현지 무역관을 통한 **후속계약 밀착지원, 참여기업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글로벌 파트너링'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 해외의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유망 소재·부품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에 **지역 강소기업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전국 협단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을 발굴해왔으며, 올해는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지역TP 등)을 통해 **지역의 유망 소재·부품기업을 발굴**하고 연결**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강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강화**한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범정부 수출총력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원효과를 높여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진승덕 사무관(☎ 044-203-4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